

CONTENTS

간행물	1
간행물	2
간행물	3
간행물	4
간행물	5
간행물	6
간행물	7
간행물	8
간행물	9

나만의 도시생활을 경작한다!

국내 옥상녹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옥상텃밭'



사진출처: Paul Burns/Corbis



맨하튼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브루클린의 오래된 메이플 공장에 뉴욕 요크들이 모여 앉아 있다. 공장의 옥상에 갖가지 신선한 채소들이 심겨져 있고 작은 시장까지 열린다.

이 텃밭은 작은 커뮤니티에서 꾸러가고 있는데, 농업프로그램과 농장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 레스토랑에 채소를 공급하기까지 한다. 지역민들은 자원하여 커뮤니티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도시농업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미국 반대편의 로스앤젤레스 도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SYNTHe Green Roof는 옥상 전체 면적 279㎡에서 139㎡의 면적에 식용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목적은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옥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텃밭의 운영 주체는 레스토랑의 요리사들과 주민이다. 직접 수확할 수 있는 과일나무와 포도나무, 허브와 채소류가 포함된 채소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일에 동참하고 있

에서는 도시농업을 택한 것이다. 직접적 녹화 효과로 도시의 생태성을 확보하고, 로컬푸드 소비로 인해 운송과정에서 탄소집감효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도 대단하다. 스스로 키운 먹을거리는 음식 이상의 의미이다.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생명의 성장을 지켜보는 생생한 환경 교육이며, 재배의 즐거움과 수확의 기쁨을 이용자에게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배춧값 파동 등 채소값이 날뛰기 하면서 알려져 특히 각 가정의 배판다나 옥상 등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도시농업'인 '옥상텃밭'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밀집된 빌딩의 규모나 가족, 회사 등 집단 구성원들의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적인 문화와 웰빙, 로하스 등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배춧값 파동과 극심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감 그리고 세계적인 IT강국인 만큼 큰 이슈에 대한 파급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나라들이 거친 시간적인 성숙단계를 단번에 뛰어넘어 빠른 시간에 급속한 성장과급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21세기 성장 동력의 한 축인 생태산업과 맞물려 그 확장 폭이 더욱 커질 것이다.



뉴욕 NYC's rooftop gardens의 옥상텃밭모임



로스앤젤레스 SYNTHe edible roof garden



맨하탄 St. Paul Hospital 옥상정원 가꾸기 커뮤니티 모임

이러한 도시의 옥상텃밭의 활성화가 농촌 경제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도시농업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농촌농업에 영향이 간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도시민에게 농산물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농촌의 진흥화한 제재방식과 안전한 생산방식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농촌의 농업과 도시의 농업은 경작의 규모와 작물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행해지는 규모적인 제재와 저장, 운송 등을 고려한 작목과 각 작목별 요구되는 품종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아마추어인 개인이 한 평 공간에 심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소비하며 감각적으로 평가하고 즐길 수 있는 보다 차별화되고 다양한 품종의 보급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혹 속에 숨겨져 있는 생명을 발견하는 놀라운, 도시에서도 자연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10세 소녀에서 40세 아저씨, 80세 할머니까지 한자리에서 소통하는 도시 공간 '옥상텃밭'이 이러한 도시생활을 풍요롭게 정착해 줄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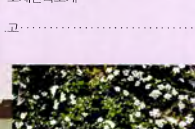
간행물



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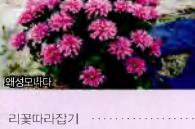
간행물



간행물



간행물



간행물

자곡동 LH공사 녹색홍보관 옥상녹화

초박형 · 비관리형 식생유니트 옥상녹화 시스템!!!

간단설치, 빠른효과, 하중걱정Zero,
비용절감, 유지관리No

◆옥상녹화 시스템 개발



해가 갈수록 도시의 인공구조물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하나가 증가하면 여딘가에서 다른 하나가 감소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이 도시에 인공구조물들이 하나 둘 늘어감수록 우리의 녹색식물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안으로서 근래에 인공구조물 자체를 녹색식물로 피복시키는 옥상녹화나 벽면녹화가 관중, 민간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에너지절감, 도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열섬현상완화 등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효과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관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옥상녹화의 경우, 많은 공법과 소재들이 개발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경관 등의 비산먼지 발생, 하중문제에 취약, 복잡한 시공과정, 초화류 적용수종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꽃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좀 더 효과적이면서 경제적으로 옥상을 녹화할 수 있는 공법 및 소재를 연구하여, 마침내 「초박형·비관리형 식생유니트」라는 녹화소재 를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게 되었다. 초박형·비관리형 식생유니트는 개개의 배수판, 지수판, 식생기반체, 식물들이 하나로 일체화되어 현장에서 식생유니트를 배치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옥상녹화가 완료되며 포트묘를 식재하여 완성하는 기존의 공법과는 달리 사전 재배되어 70% 이상의 피복율을 갖는 식생기반체를 사용함으로써 시공완료와 동시에 경관적 효과가 발휘되는 시스템이다.

◆현장적용

2010년 11월 중순경 자곡동 LH공사 녹색홍보관에 우리꽃을 포함한 5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옥상정원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다. 제안을 받은 직후 이전농장에서 초박형·비관리형 식생유니트를 하우스에서 사전재배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우선 적용초종으로 건조에 강한 식물인 세덤류중 〈금강에 기린초·블루솔·무늬돌나물 등의 포복형세덤〉과 〈붉은애기평의비름·파란잎평의비름 등의 비포복형세덤〉, 〈큰평의비름만주·노랑줄무늬평의비름등의 직립형세덤〉을 선정하였고 4월부터 10월까지 오랜기간 꽃을 볼 수 있는 상록잔디패랭이, 그라스류의 아이스댄스, 에버골드 등 총 16종류의 초종을 혼합 또는 단일로 식재하여 약 2달간의 재배기간을 거쳐 완성형의 식생유니트가 만들어졌다.

11월 중순경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5개의 업체가 좁은 옥상에서 작업에 착수하였다. 먼저 자체 양종작업이 시작되었고, 배수판, 토사, 멀칭재, 식물 등 갖가지 자재를 올리느라 정신이 없는 타업체와는 달리, 완성형의 식생유니

트반을 사다리차를 이용해 간단히 양종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먼저 옥상바닥 표면의 이물질이나 식생유니트를 손상시킬 수 있는 요철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식생유니트를 적절히 배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세덤이라고 하면 모두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순히 겉에 드러나는 형태만 보고 판단하여 옥상녹화에 적용하다보니 제대로 된 효과를 못보는 것이 다반사였다. 세덤은 형태적, 생태적으로 다양한 품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모르고 품종을 적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없다. 우리꽃에서 선보이는 세덤패트는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여 다양한 세덤을 혼합하여 봄부터 겨울까지 4개월 내내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다. 혼합으로 식재된 키가 낮은 세덤류를 면적대비 70%정도 배치하고, 직립형의 키가 큰 세덤류와 꽃이 탐스러운 상록잔디패랭이를 중간 중간에 섞어 넣음으로써 대부분의 초종이 세덤으로 이루어져 자칫 단조롭게만 느껴질 수 있는 식재패턴을 꽃과 세

쉽고 빠르게 설치 가능!!!



▲바탕면정리 및 청소



▲초박형·비관리형 식생유니트 포설



▲인접마감부위 절단 마감



▲시공완료

담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연출하였다.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새로운 옥상녹화 기법에 여러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물려들었다. 설치도 간단하며 설치와 동시에 경관유발 효과가 뛰어난 기법에 사람들 모두 한 목소리로 좋은 반응을 보였다. 3치포트의 식물들을 식재하여 피복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타사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마지막 공정으로 곡선부 등의 경계부위에 식생유니트를 절단하여 배치함으로써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한창 작업에 열중한 타업체와는 달리 쉽고 빠르게 작업을 끝마칠 수 있었다.

다소 늦은 시기에 작업이 이루어져 최고의 경관이 연출되지는 않았지만 이듬해 봄이 되어 식물들이 경쟁적으로 꽃과 잎을 피워낼 때 좀 아름다운 경관이 연출되리라 기대해 본다.



▲하우스에서 사전재배되고 있는 모습

◆초박형비관리형 식생유니트 시스템의 장점

간단설치! 빠른효과!



■원터치 연결구



■타사 제품



■우리꽃 제품

저수판과 배수판, 사전 식물이 재배된 식생기반체가 일체화된 초박형·비관리형 식생유니트를 원터치 연결구로 상호 결속하여 배치하는 것만으로 시공이 완료되며, 90%이상의 피복율을 갖는 식생유니트를 현장에 적용하기 때문에 설치와 동시에 경관적 효과가 뛰어나다.

하중걱정 Zero!

최대수분함유시 적재하중이 m^2 당 60kg로 하중 걱정 없이 경관형, 중앙형 옥상녹화 어디든 시공이 가능하다.



장당 최대하중 11kg
60kg/㎡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사무실, 학교, 주거용 건축물	200Kg/㎡
옥상플라자, 테라스, 옥상정원	500Kg/㎡
적재물이 거의 없는 옥상	100Kg/㎡
30도 이상 경사지붕, 곡면지붕	80Kg/㎡
헬리콥터 정착장	500Kg/㎡

※자료 : 건설교통부령 제53호 제11조 1항 별표4

유지관리 No!

건조에 강한 15종의 세덤류와 초화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수판의 수분저장 효과가 탁월하여 관수문제에 자유로우며 하차발생시 해당 유니트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유지관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저수판의 수분저장 효과 탁월



유니트 교체가 자유로움

가격 Down!

타제품과 비교하여 드레인보드 설치, 부직포 포설, 토양층구축, 멀칭재 포설 등 불필요한 공정이 제거되어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아름다운 옥상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



▲현장시공 모습

큰너도부추

Armeria pseudarmeria 'Mardi Grass'
갯질경이과, 🌞 🌿



초장 15cm의 분홍색 꽃으로 4~5월에 개화, 대체로 건조지역에서도 잘 자라며 너무 습기가 많으면 장마기 혹은 겨울에 고사할 수 있다. 큰너도부추는 ARI기든, 혼합, 혼성식재 뿐만 아니라 꽃꽂이용 소재로도 유리하다.

애기노랑금계국

Coreopsis 'Creme brulee'
국화과, 🌞



6~10월까지 장기간 개화, 화색은 노랑색이고 키는 30~40cm정도 자란다. 꽃은 직경이 약 3cm정도로 기존 금계국보다 작으나 화수가 많은 다화성의 식물, 1차 꽃이 만개 후 지고나면 위로부터 3~4마디 아래를 컷팅해주어야 2차 개화를 빨리 유도할 수 있다. 도로변, 골프장, 식물원 등에 대면적에 군식하거나 혼합식재시 이용하면 좋다. 번식은 봄, 가을 포기나누기를 하거나 삽목하여 증식한다.

너도알레지

Dodecatheon clevelandii
국화과, 🌞 🌿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로 꽃의 모양이 알레지와 비슷하다. 여름에 잎이 없어지며 휴면기를 갖는데 이때 캐내어 서늘하게 보관하여 화분에 심으면 유리하다. 축축하지만 배수가 잘 되는 부식질이 풍부한 토양을 선호한다. 영초와 같이 양지나 활엽수림아래 적당한 습윤지 또는 수변지역에 식재하면 적합하다. 봄에 분주하거나 열매를 춘화처리 후 파종하여 증식한다.

플락카

Carex flacca
사초과, 🌞 🌿



20~30cm정도로 자라며 카네이션 잎을 닮은 파란색잎의 사초이다. 적응범위가 매우 넓어 어디에도 잘 적응한다. 모퉁에 의한 줄기 생장을 하지만 밀도가 아주 높게 천천히 퍼진다. 질감이 섬세해 지피식물로도 매우 좋다. 내건 조성이 강하고 산성과 알칼리성 토양에서 잘 적응해 내염성도 강하다. 물빠짐이 극히 불량한 지역의 건조에서는 길이 생장이 나쁘다.

꽃잔디 레드선

Phlox douglasii 'Red sun'
꽃고비과, 🌞 🌿



화색이 빨강색을 띄는 꽃잔디로 별모양의 꽃이 모여 구형을 이룬다. 4~5월에 꽃을 피우며 포복성으로 자란다. 대면적에 단독식재하거나 화색이 좋아 다른 꽃잔디 품종과 서로 어울려 심으면 좋다. 특히 구형의 품이 좋아 라인식물로 이용해도 좋다. 번식은 주로 가을에 삽목을 하여 증식한다.

꽃잔디 레드아이

Phlox subulata 'Scarlet Flame'
꽃고비과, 🌞 🌿



꽃이 붉은 빨강색 꽃잔디로 가운데 심이 있어 매우 강렬한 느낌을 주는 품종이다. 흰색의 강렬함을 주고 심을 때 알맞은 품종이다. 양지쪽에서 잘 적응하고 토양은 별로 가리지 않으나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잘 자란다. 건조에도 강하고 공해에도 강해 도심 속 양지 바른쪽이라면 어디에서도 잘 자란다

왜성모나다 우리

Monarda didyma 'URI'
꿀물과, 🌞



키가 20~30cm 자라는 왜성종, 꽃은 분홍색 꽃이 피며 잎의 향기가 뛰어나다. 한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개화하고 생육이 강건하여 화단, 도로용 지피식물로 좋다. 허브에서는 벨가뭇이와 부르기드 하는데 허브원을 조성할 때 꽃과 잎의 향기가 좋아 빠질 수 없는 필수품목이다. 번식은 봄, 가을에 삽목하여 증식한다

후룩스 봄맞이

Phlox divericata 'Chattahoochee'
꽃고비과, 🌞



후룩스와 꽃잔디의 중간형태를 띠는 품종으로 키는 40~60cm정도 자라고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분홍색의 꽃을 피운다. 꽃이 매우 다화성이고 조밀하게 피어난다. 화기가 다른 여름, 가을식물과 혼식하면 좋고 특히 꽃잔디와 개랑후룩스와 혼식하면 한 장소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연속해서 꽃을 볼 수 있다. 특히 봄에 꽃을 피우는 소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봄꽃 소재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후룩스 봄바람

Phlox divericata 'Cloude of perfume'
꽃고비과, 🌞



건조한 곳에도 약간의 음지에도 잘 자란다. 다양한 화색, 왜성종, 고성종 등 품종 선택의 폭이 넓다. 고급정원, 도로가, 골프장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꽃이 저도 약 15~20cm정도 자라며 4월말 경부터 은은한 보라색의 꽃이 피기 시작하여 5월까지 꽃을 피우는데 꽃이 피어있을 때는 향기도 매우 좋은 식물이다. 군식하거나 화기가 다른 여름, 가을 식물과 혼식을 하면 좋다. 특히 개랑후룩스와 혼식하면 한 장소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연속해서 꽃을 볼 수 있다. 강건하여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 식생하면 잘 자란다. 비옥한 토양을 선호한다.

사포나리아 코튼

Saponaria officinalis 'White Smoge'
석죽과, 🌞



화기가 진해 정원이 황기정원이 된다. 특히 흰꽃이 피는 코트의 경우 솜과 같은 하양의 향기덩어리다.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좋아한다. 배수가 불량한 곳은 여름 장마기 때 생육이 매우 불량해진다. 암석가든 혹은 돌담 정원으로 이루어진 화단에 적합하다.

적엽클로버

Trifolium repens 'Purpurensens'
콩과, 🌞 🌿



적엽클로버는 포복성으로 잎이 흑갈색인 점이 특색이다. 잎의 색깔이 좋기 때문에 혼합식재는 물론 문양을 연출할 때에도 유리하다. 생육이 강건해 어디에서도 잘 자라며 특히 나무아래 반음지에도 피복식물로 빠른 피복과 더불어 다른 식물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 번식은 포기나누기와 삽목을 통해서 대량증식이 가능.

무늬여우꼬리그라스

Alopecurus pratensis 'Variegatus'
화본과, 🌞 🌿



잎에 진한 노란 무늬가 들어간 식물로 키는 30~35cm까지 자란다. 생육이 강건해 사방용으로도 좋다. 양지에서 반음지까지 생육가능하다. 물빠짐이 좋은 곳을 좋아하고 보기 형성이 좋아 암석가든용으로도 좋다. 이른 봄 전년에 무성한 잎을 제거해주면 더욱 빠르고 좋은 색의 잎을 볼 수 있다.

새 블루마운틴

Calamagrostis acutiflora 'Blue Mountain'
화본과, 🌞 🌿



키는 약 60~70cm정도 꽃잎이 자라고 잎은 블루색을 띤다. 브로즈색의 꽃은 매우 아름답고 약간 축축한 숲을 좋아한다. 너무 건조하면 생육이 불량해질 수가 있다. 아파트 등의 약간 습하고 반그늘진 곳에 심으면 좋고 활엽수 가장자리 등의 반음지에도 좋다. 정원의 혼합식재 혹은 기타 식물의 스크린식물로 활용에도 안성맞춤이다.

좀새풀 무늬

Deschampsia caespitosa
화본과, 🌞 🌿



고슴도치같이 섬세하고 조밀한 품으로 질감은 물론 무늬가 들어가 색깔까지 더해 군식, 라인식물, ARI가든의 포인트 식물로도 좋다. 생육이 강하고 자람이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서늘한 계절을 좋아하며 건조에 조금 약한 면이 있다. 혹시 여름 고온, 건조에 의한 피해가 있더라도 가을이 되면 바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번식은 봄, 가을로 분주하거나 삽목하여 증식한다.



우리꽃이 개발한 가우라 가우라 베이비

▶ 키가 작아 쓰러짐이 없고 은은한 아름다움이 최고입니다.



가우라는 우리꽃에서 2005년 선보인 이후 지금은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꽃이 된 품종이다. 그 중에도 우리꽃에서 개발한 신품종 가우라 베이비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우라는 하양, 분홍, 빨강의 화색에 키가 70~80cm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간화하는 꽃으로 군식, 열식, 혼합식재 어디에도 좋아 현장에서 필수적인 품종이 되었다. 가우라 베이비는 몇 종의 변이체가 발견되어 분류 후 관찰한 결과 꽃은 분홍색에 키가 기존의 가우라보다 작고 줄기가 단단해 쓰러짐이 거의 없는 것을 골라 분리, 선발한 품종이다. 그 외 가우라가

가지는 장기간화, 생육 환경 등의 특색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앞으로 전망이 기대 되는 품종이고 은은한 느낌의 꽃은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간직한다. ARI가든의 포인트 식물로 혼합식재시 앞쪽라인으로, 도로열 열식, 단독식재, 군식 모두 좋은 식물이다. 특히 가우라는 1년에 2~3회 만개 후 일과 꽃대 사이를 컷팅을 해주지 않으면 길게 자라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우라 베이비의 경우 꽃대가 짧아 바쁜 일정으로 컷팅 시기를 놓치더라도 경관상 나쁘지 않아 관리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

가우라의 뿌리는 굵고 곧아 배수가 잘되는 사질토에서 생육이 가장 좋지만 일반 건조한 곳에서도 생육이 양호하며 양지는 물론 약간의 그늘에서도 잘 자란다.



봄에 피는 다화성의 분홍 동자꽃

비단동자

▶ 무리를 이루어 심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고 있다. 일반 동자꽃은 가지 끝에 자그마한 꽃대를 세우고 주황색 꽃이 피며 그늘과 추위에 강하나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며 여름의 따가운 햇빛을 받으면 잎이 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생종으로는 전체적으로 털이 많은 털동자꽃, 짙은 홍색의 꽃잎이 깊이 갈라진 계비동자꽃 등이 있다.

우리꽃이 보유하고 있는 품종으로는 잎이 붉어 꽃이 없어도 효과가 좋은 붉은잎 동자, 꽃대가 길게 올라 오고 짙은 오렌지의 탐스러운 꽃이 피는 수레동자 그리고 꽃대에 층층이 꽃이 달리는 다화성의 비단동자이다. 또 비단동자에

잎의 무늬가 좋은 무늬비단동자도 있다.

비단동자는 봄에서 초여름까지 꽃을 피우며 대체로 양지를 선호 하지만 활엽수의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된다. 원예종으로 개량된 대부분의 품종이 그렇듯 토양은 물빠짐이 좋은 사질토가 좋지만 특별히 가리지는 않는다. 단 여름철 배수가 불량하면 식물체가 녹아 내리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초장은 5~10cm 정도이지만 꽃대가 올라오면 30~50cm까지도 자란다.

암석원에서 바위앞이나 돌틈에 식재하거나 혼합식재시 상록잔디패랭이, 상록양지꽃, 하늘용담 등 키가 작은 식물의 뒤편에 식재하면 좋다. 군식해도 좋은데 무리를 이루어 심으면 5월 봄에 아름다운 진분홍꽃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군식시에는 꽃백합, 리아트리스 등 화기가 다른 근근식물과 혼성식재 하면 한 곳에서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우리꽃은 창사 이래 조경용 모종 및 종자 시장에 많은 신제품을 선보여왔다. 가우라, 숙근코스모스, 잔디패랭이, 우리법면혼합종, 눈꽃은필레 등등... 그리고 많은 제품들이 폭발적인 인기속에 현장에 적용되어졌고 지금도 꾸준히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큰 인기를 모으며 지금까지도 조경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우리꽃 명품'들을 다시 재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우리법면시리즈

골프장, 아파트, 도로가의 아름다운 경관연출



우리법면혼합종 시리즈는 출시된지 올해로 10년을 맞게 된다. 초창기에 폭발적인 인기 속에 지금까지도 현장에 꾸준히 적용되고 판매되는 인기품목이다.

우리법면혼합종은 우리꽃이 개발한 혼합종 시스템으로 2001년 첫 출시되었고 2003년 파인밸리 골프장 전층 시공을 계기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우리법면혼합종이 나오기 이전에는 주로 외국에서 혼합종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했지만 우리나라의 기후와 토질 등 우리의 환경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첫해만 좋았다가 다음 해부터는 땅가지는게 대부분이었던 게 현실이었다.

그렇다고 단일종을 쓰면 대부분 화기가 짧기 때문에 오랫동안 좋은 경관을 보기 위해서는 혼합종이 반드시 필요한 소재였다. 그렇기에 우리꽃은 자체 기술로 우리에 맞는 품목과 혼합비율을 규명하여 혼합종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을 다양화 했다. 우리법면 3호의 경우는 우리토종이 추가 되어 혼합된 제품으로 2년차부터 별개미취, 부처꽃, 마타리 등이 자연의 미를 한껏 뽐냈고 4호의 우리토종과 외국의 도입종을

적절히 혼합하여 화려함을 강조한 제품이다.

우리법면혼합종은 26종이 적절한 비율로 혼합되어 첫해에는 1년생 위주로 개발하고 다음해부터 숙근초가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시스템으로 첫 해 파종부터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고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해서 개화하는 장점이 있다. 이른 봄 이후에 시공한 현장은 빠르면 45일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장마기에 꽃이 주출하였다가 장마가 지나면서 가을로 접어들어 시기에 다시 화려한 꽃을 피워내는가 하면 2년째 되는 봄부터 약 15일주기로 화색이 바뀌어 가면서 연속개화한다. 골프장을 중심으로 식물원, 대학교, 관광지 등 대면 적의 법면에 시공되어 이제 는 혼합종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동안 저렴한 유사제품도 많이 나왔지만 이들 제품들은 식물상호간의 혼합비율을 규명하지 않고 종자들을 임의대로 혼합하여 첫 해에 잠깐 반짝하다가 사그러지는 결과가 빈번하게 속출 하였다. 하지만 우리법면혼합종은 여러현장에서 해를 더할수록 더욱 안정되고 좋은 경관이 유지되었다. 실제로 눈으로 확인되었기에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더욱더 판매가 증가되었고 지금까지도 업계에서 혼합종의 독보적인 제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법면시리즈를 이용한 현장은 매년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은 2010년을 거쳐 2011년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천정비사업을 통해서 하천 및 생태복원의 일환으로 대량의 야생화가 현장의 여건에 맞추어 묘종과 종자의 형태로 나누어져 적용되어질 것이다. 일반적인 유통량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이 단기간에 소요되어지기 때문에 수급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다. 4대강용 묘종과 종자의 수급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4대강용 묘종과 종자의 수급과 앞으로의 전망

묘종

납품단가도 중요하지만
생산업체의 생산능력과 신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갈대



▲금복초



▲꽃향로



▲노랑꽃향로



▲노루오줌



▲물레나물



▲물억새



▲별개미취



▲부들



▲부처꽃



▲붓꽃



▲산국



▲수크령



▲쑥부쟁이



▲억새



▲연주리

4대강용 묘종으로 물억새, 갈대, 부들, 수크령, 꽃향로, 노랑꽃향로, 별개미취, 산국, 구절초, 갯벼들, 붓꽃, 원주리, 금복초 등이 주수종으로 설계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4대강에 들어갈 물량은 공사 규모나 면적을 보았을 때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유통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생산능가는 미리 이러한 품목 들을 생산해놓기도 했지만 전체물량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부분의 생산능가는 1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 내년 봄까지 계속적으로 대량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현재 4대강용 묘종의 생산과 유통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물량이 대량 이다보니 납품가도 보통유통가에 비해 저렴한것은 것은 어느정도 예견된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4대강과 같은 특수는 빈번하게 오는 경우가 아니므로 업체간 과다경쟁, 즉 아직 물량이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먹고보자'는 식의 경쟁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납품가는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다. 물론 조정회사 입장에서는 단가의 하락은 좋은 측면도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량이 되지도 않은 업체 또는 생산능가와 계약하여 실제로 납기일에 물량을 못맞추어 애를 먹을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더 비싼 가격에 다른 곳에서 조달해야 하는 경우도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또한 제대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거나 너무 낮은 가격에 수주하여 실제로 앞에서 남고 뒤로 밀리는 그래서 4대강 공사가 끝나고 나면 쓰러지는 능가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질 좋고 안정된 물량수급이 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생산업체의 생산능력과 신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정한 가격에 안정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 업체, 생산능가 모두 효율 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영초, 세모고랭이, 노랑붓꽃, 줄 등 재배보다는 산채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품목들은 과감히 설계에서 품목변경이 이루어져야한다. 4대강은 한두공구에만 잡혀 있어도 일반적인 유통과 달리 품목별 많은 물량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재배가 용이하지 않은 품목들은 수급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자

원활한 종자 수급을 위해
빠른 계약을 통해 품목별 수급가능여부가 조속히
판단되어져야...

다년생 초본류를 비롯하여 관목류,
1년생 종자 등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우리나라에서는 야생화를 비롯한 범면목화용 종자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급해 오는데 현실이다(양산도 제외). '우리꽃'과 같이 중국에 직접 생산기지를 갖추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 중국현지지의 생산유통업체를 통해서 매년 물량을 결정하여 국내로 들여온다. 앞의 묘종에서 언급했듯이 종자 또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유통량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물량이 4대강 현장의 법면에 사용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는 물량의 수급이다. 어느정도 예상되었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그 이유는 중국현지에서 기존처럼 원활하게 수급이 된다고 해도 턱없이 물량이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인데 중국 자체적으로 2010년 작황이 좋지 않은데다가 내수 조정현장에 많은 물량이 소요되기 시작하여 더욱더 물량수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다양한 품목의 적용이 절실하다. 현재는 빠른 회복력과 꽃을 볼 수 있는 종자를 중심으로 몇 종류가 혼합되어 설계되어지고 있다.

쑥부쟁이, 산국, 수크령, 갈대, 패랭이, 억새, 도라지, 마타리, 붓꽃, 별노랑이, 범부채, 별개미취 등이 주로 적용되어져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들 물량이 확보는 많이 되어있다고 해도 전체물량을 충당하기에는 지금 보아서는 현저히 모자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품목을 다양화 하기위해서 다음과 같은 품목의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할 듯 싶다.

초본류로는 생육이 강건하고 꽃이 좋은 품목으로 황금, 딱지꽃, 타래꽃, 배초향 등이 있고 피복력이 좋은 품목으로 절경이, 비수리, 알팔라 등이 있다. 그리고 혼합하여 뿌릴 때 당해연도 어느 정도 꽃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1년생을 혼합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파꽃, 맨드라미, 양귀비, 말뚥이나무, 영채, 안개초, 끈끈이대나물 등을 적용하면 좋다. 그리고 목본류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당초팝, 개쉬팡, 불나무, 자귀나무, 참싸리, 낭야초, 열귀 등이 그러한 품목들이다.

마지막으로 종자부분도 빨리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종자가 모자랄 것이란 판단만 되어질 뿐 각 개별종자에 대한 수급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속하게 계약이 되고 물량이 오픈되어야 모자라는 품목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꽃



▲참깨



▲당초팝



▲갈대



▲도라지



▲딱지꽃



▲마타리



▲배초향



▲범부채



▲산국



▲수크령



▲쑥부쟁이



▲억새



▲재비꽃



▲타래꽃



▲패랭이



▲황금



▲타래꽃



▲패랭이

신소재 관목소개

경관을 연출하는데 있어서 지피식물 뿐만 아니라 관목류도 매우 중요한 소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목으로 사용되는 소재가 매우 한정되어있다.
그래서 이번 코너에서는 경관적, 기능적으로 우수한 다양한 관목소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상록성의
조밀한 소재

코트너아스터

수목하부, 돌메지용, 암석가든 등에 좋습니다.



코트너아스터(Cotoneaster)는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북아프리카에 80여종이 분포하는 상록, 반상록의 소형 관목식물이다. 산림지대에서부터 바위가 많은 곳까지 다양한 생육특성을 가지며 키는 3-4m에서 10cm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장미과로 우리 나라에는 홍자단, 백자단이라고 하여 관상용, 분재용으로 들어와 있고 섬게야광나무, 둥근잎게야광나무가 자생한다. 형태적으로도 위로 자라는 종과 옆으로 뻗어나가는 종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하면 된다.

조경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럽에서는 주로 수목의 하부에 식재하거나 혹은 바위나 벽을 타고 내려오게 배치를 하며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게하여 생울타리를 연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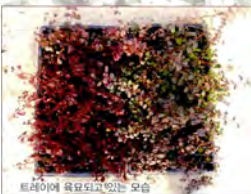
집시모양 또는 옆으로 넓직한 얇은 길모양의 꽃이 봄에서 여름까지 흰색 또는

분홍색으로 피며 꽃이 지고나면 가을에 붉은색의 지름이 약 8-9mm 정도 되는 구형 혹은 계란형의 아름다운 열매가 줄기 전체에 달린다.

겨울에도 열매가 달려있어서 붉은 열매 표면에 서리가 내려 살짝 살얼음이 언 상태는 겨울경원의 대표적인 장면이 될 만하다.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좋아 하나 대부분 건조한 조건에도 잘 견디고 염분에도 내성이 있는 편이다. 반음지, 양지 모두 잘 자라며 열매를 많이 보기 위해서는 양지가 더 좋다. 정갈하게 자라는 편이라 특별히 전지를 해줄 필요가 없지만 생울타리가 밀집력있게 보이도록 하려면 많이 전지를 해주어도 무리가 없다. 단, 큰 포기는 이식력이 좋지 않아 어릴 때 옮겨주는 것이 좋으며 포트묘일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

우리 조경현장에서도 수목아래 하부식재, 돌메지용, 석축위 식재, 암석가든, 벽화수용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록성 관목이다. 🍁



트레이에 육묘되고있는 모습

페스티벌 혼합종 시리즈

계절용 페스티벌 '스포링', '썬더', '스카이'



조경연출이 필요한 도시의 거리, 길가, 공원 등에 간편하게 처리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육과 관리가 쉽고 개화기가 길어 1회 살포만으로 경관 연출을 완성합니다.

자연을 담은 사람들 🍁 우리꽃 구입문의 : 031)712-7001,7119

빠른 효과, 편리한 시공 우리 식생매트

우리식생매트는 시공 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완성형의 화단을 위한 최고의 제품군입니다.
편리한 시공, 완성형의 빠른 효과외에도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패턴의 제품군이 있습니다.



봄꽃용 혼합형 식생매트

봄 일찍 화단에 팬지대용으로 튼リップ, 꽃잔디, 고급일년생 초화류를 혼식해서 새로운 개념의 파스텔톤의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합니다.



고급품종군 식생매트

꽃이 화려하거나 장기개화되는 고급품종군은 도로변, 행사장 등에 군식, 혼합식재용으로 빠른 효과를 원할 때 좋습니다.



그라스류 식생매트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그라스류 식생매트를 다양하게 선보입니다.



야생화 식생매트

벌개미취, 붓꽃, 수크령, 꽃뿔의꼬리, 사스타데미지 등 빠른 피복과 꽃이 좋은 다양한 야생화 식생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담은 사람들 🍁 우리꽃 구입문의 : 031)712-7001,7119

우리꽃은 국내외 우수한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국내 야생화의 개량은 물론 외국의 유전자원에서 우리토종의 품종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미 상록잔디패랭이는 국내 무수한 조경현장에 적용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해외 자원인 코레움시스로부터 개발된 우리드림은 역수출하여 로얄티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꽃이 개발하여 품종보호출원한 다양한 품종들이 전세계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우리꽃에서 현재 품종보호 등록 및 출원중인 주요품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우리꽃 신개발품종

품종보호 등록 및 출원중인 주요품종들



1 Dianthus속 식물- 상록잔디패랭이, URI2010시리즈

잔디패랭이와 상록잔디패랭이를 시작으로 4계성에 육성의 포인트를 맞추어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였다. 건조에 강하고, 상록성의 품종이다. 혼합식재시 앞 라인에 적용하면 항상 꽃이 있는 정원을 연출 가능하다. 분화용으로도 매우 좋다. 일본과 유럽에서 시험재배계약을 완료하여, 테스트가 끝났다. 올해 각 품종당 100,000본 이상 로얄티 수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URI2010시리즈

▲상록잔디패랭이

2 Rosa속 식물- 눈붉은필레, 눈분홍필레

땅필레의 변이종으로 포복성이다 생육이 매우 강하고 순번음이 좋아 활착 이후 1년에 15M이상 자란다. 꽃차례가 30cm 정도로 크고 마디마다 꽃이 맺히므로 온통 꽃덤불을 형성한다. 외대로 길러 등글게 가지들 내어 꽃을 피우면 최고의 포인트 식물이 된다.



▲눈붉은필레

▲눈분홍필레

3 부처꽃-탑부처꽃

화서의 수와 길이가 길고 풍성하여 관상가치가 일반 부처꽃에 비해 매우 뛰어나다. 생육이 강건해 특별한 생육환경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습기와 양지를 선호한다.



4 Phlox속 식물- 핑크레이디, 스윗체리, 체리비너스

핑크레이디는 꽃잔디(douglasii)에 속하는 품종으로 키10cm 내외의 포복매트형이며, 호냉성식물이다. 스윗체리, 체리비너스는 후룩스(paniculata)에 속하며 장기개화형이다. 차별화된 연출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품종을 연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스윗체리

▲핑크레이디

5 Coreopsis속 식물- 우리드림, 럭키텐시리즈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해외에서 주목받는 우리꽃 최초의 로얄티 품종이다. 총 22개 품종을 품종출원하였으며, 전세계 최대 신품종을 보유한 품목이다. 흰색, 노란색, 살구색, 오렌지, 분홍색, 빨간색, 스프레이, 튜브형 등 다양한 화색과 화형을 갖추고 있다. 금계국속 색상의 폭을 넓혀 파스텔톤의 다양한 색감을 제공한다. 생장이 왕성하여 지피식물로도 효과가 좋다. 분화용으로도 매우 좋고 품종이 다양하다.



▲럭키텐시리즈



▲우리드림시리즈

6 Aster속 식물- 왕무늬벌개미취, 벌개미취 '햇살'

한국특산식물인 벌개미취에서 선발한 품종이다. 잎의 무늬가 독특하고 아름다운 종으로써 그 활용가치가 좋은 품종이 될 것이다.



7 Sedum속 식물- 백두산애기기린초, 금강애기기린초

포기를 잘 형성하는 식물로 조밀한 매트형태를 형성한다. 국내조경에 잘 적응한 종류들로 생육이 강건하다. 토양의 물빠짐이 좋은 곳이어야 다년간 큰 포기를 유지할 수 있다. 옥상조경용으로 좋은 소재이다.



▲금강애기기린초

▲백두산애기기린초

8 Gaura 속 식물- 베이비, 그린스마일, 그린스마일

화색이 아름답고 장기개화형이다. 화색뿐 아니라, 우리꽃은 잎의 무늬가 좋은 품종을 개발하였다.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선호한다. 건조한 곳에서 혹은 약간의 반음지에서도 잘 자란다.



▲베이비

▲그린스마일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면서 국제적으로도 품종보호의무를 지게 되었다. 종자산업법에 의해 1997년부터 실시된 식물신품종보호제도에 의해 육종자가 품종을 개발한 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를 출원하면 심사를 거쳐 신품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렇게 신품종으로 출원·등록된 대상작물은 타인의 무단증식 등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꽃의 신품종을 허가없이 재배, 생산하는 일은 우리꽃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



IPM 2011 원예박람회



‘우리꽃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해본다. 바로 고객들이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것, 고객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꽃은 2011년 1월 27~28일 이틀 간에 걸쳐 독일 Essen에서 개최하는 'IPM 2011 원예박람회 (IPM-Internationale Pflanze Messe)'에 참가하였다. 독일은 매년 150여개의 무역 박람회와 전시회가 개최되

며, 이로 인한 연간 방문객수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연간 각종 무역 박람회에 전시 참여하는 업체는 무려 175,000여 업체에 달하며, 이중의 45%가 모두 독일외의 외국 업체들이다. 우리꽃이 참관한 이번 박람회 또한, 28년간 그린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박람회로서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의 원예 분야에 관련된 1,423여 업체와 60,000여명이 참관했다.

박람회장의 입구에서부터 원예 분야에 관련있는 사람이나 관련은 없지만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로 만 디딜 틈이 없었다. 넓은 박람회장을 효율적으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알아보기 쉽게 구역을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관심분야부터 찾아가면 된다.

박람회장은 식물, 기술, 화훼철화분야, 세일즈프로모션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식물구역은 꽃이 만개한 분화 식물부터 플러그, 수경재배용 식물, 종자, 구근, 숙근초, 채소 등 각종 식물을 망라하였으며, 구역 포트와 화분, 비료, 토양, 관련 자재들 또한 찾을 수 있다. 기술구역에는 하우스의 설계에서 자동제어, 관수, 태양열시스템에서 농장에서 운반과 제배에 필요한 농기계, 농기구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화훼철화분야는 가장 화려한 구역으로, 눈을 땔 수 없는 화려한 디스플레이부터 철화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있다.

유럽의 원예는 이미 기계화되어 규격별, 단계별로 자동 생산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이묘생산과 트레이에서 포트로의 이식, 포트 생산 및 이 후 포장과 납품 등 각 단계별로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자동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규격 제품,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하우스를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 모두 박람회장의 다양한 회사에서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가든센터를 통해 다양한 품종들이 빠르게 구매자들에게 보급되고, 이러한 품종시장이 일반 소매자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신품종에 대한 요구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보편적으로 집안의 내외부에서 식물을 가꾸고, 자신만의 정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볼에만 반작하는 우리나라의 원예, 조경 시장과 달리, 일반인들이 사계절 가든 센터를 통해 필요한 원예자재와 식물들을 구입하는 모습이 매우 일상적이다.

따라서, 박람회장에서는 각 소규모의 농가들이 내세우는 품종들 중에 새롭고, 용도가 뛰어난 신품종들을 찾기 위해 열심히 부스를 살피고 있는 신품종 보급회사들과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신품종들을 열매게 홍보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또한, 우리나라 부스들이



해외박람회장에서 기술센터나 농진청 등 정부의 화성기 아래 일부 업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던 모습들과 매우 대조적이었다. 이처럼 전문화되고, 과학적인 선진의 원예시장을 통해 받는 자극도 자극이지만, 일반 소매시 장의 흐름도 놀랐다. 일반 소매를 위해 형성된 원예 시장이 우리나라는 소규모이고 제한적이지만 열나라 일본부터 유럽 국가에서는 가정의 실내와 정원에 적용 할 수 있는 갖가지 제품을 갖추고 있으며, 소매시장 또한 활기가 있다. 특히 디자인이 돋보이는 귀여운 원예용 품, 실용성 있는 아이디어 상품과 구근을 활용한 분화 상품 등이 눈에 띄었으며, 개인의 취향에 맞도록 DIY 제품이 상품화되어 누구나 꽃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이다.

박람회장은 자신의 제품을 열매게 홍보하고 서로의 업체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며 계약을 하는 등 박람회를 통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5일 내내 열기가 가득했다. 우리꽃도 이러한 세계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진출 시장을 넓혀나가기 위한 발판으로서 이번 박람회에 참관하였다. 우리꽃의 신품종들은 우리나라의

분명한 사계절에 적용한 품종이면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색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여러 나라의 회사에서 우리꽃의 신품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우리가 개발한 품종은 어떤 품목군 이든지 보여달라는 새로운 품종에 대한 열정적인 리브롤이 방문한 부스마다 채도하였다.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세계 각지의 가든센터에서 우리꽃 라벨이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래 본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시장에 대한 자극과 고객의 요구도에 대한 우리꽃의 의무감을 더욱 크게 느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꽃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해본다. 바로 고객들이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것, 고객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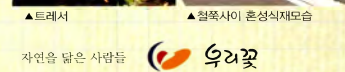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의 소비자들이 가든센터에 부담없이 방문하여 꽃 뿐만 아니라 정원용품 등 구매활동을 하듯이 우리나라도 고객들이 원예활동에 참여하는 즐거움과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분화로서 더욱 발전된 원예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꽃은 변화하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할 것이며, 세계적으로 우뚝 선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혼성식재를 위한 최고의 품종 꽃백합



- 철쭉사이 혼성식재하여 봄에는 철쭉꽃을 여름에는 꽃백합을~
- 봄, 가을 개화식물과 혼성식재
- 여름이후 급속하게 성장하는 역새 등의 그라스류와 혼성식재
- 다양한 품종으로 백합원 조성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31)712-7001,7119

12 식물의 명명과 분류

식물의 명명

한 개의 식물학적인 이름은 한 식물에만 적용되며, 보통 국제적으로 잘 인식되어 있는 보통명으로 불린다. 처음 그 식물을 수집한 사람의 이름이나, 그 식물의 두드러진 특징을 참고로 한다. 식물 분류의 기본적 단위는 이명법에 의해 표시되는 종의 단위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아종, 변종, 품종은 앞에 접두어로 subsp., var., f.를 붙여서 추가로 칭호가 주어진다. 인위적으로 선택된 품종들은 자국어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Callunavulgaris* 'Firefly'와 같이 보통 종명 뒤에 "표기로 나타내며 길라낸 사람에 의해 명명된다.

농가에서는 진파 품종명 대신에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트레이드마크 이름을 등록하기도 한다. 교배에 의한 잡종은 곁생표시로 표시되고, 접목에 의한 잡종은 더하기 표시로 나타낸다.

식물학적인 이름은 주로 잘못 정의내려졌거나, 예전 이름이 상위에 있거나, 식물 그룹이 다시 분류될 때 때때로 바뀌기도 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대체된 이름이 이명이 된다.

(오른쪽의 상록잔디파랭이 계통도 참조)

학명(scientific name)

전 세계에는 매우 다양한 기후지역에 매우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거나 사용되고 있으며, 각 지역에는 이들만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물의 이름이 있다. 이를 보통명(common name)이라 하는데, 이는 지역이 다르거나 특히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거나 의사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없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학명으로, 그 구성이 속명(eneric name)과 종명(species name)의 두 가지 체제로 되어 있어서 흔히 이명법(binomials)이라 한다.

학명은 세 개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첫 번째의 이름은 속명으로 단수는 genus로, 복수인 경우에는 genera로 각기 표기한다. 예를 들면 단풍나무속(*Acer*), 소나무속(*Pinus*), 참나무속(*Quercus*), 미선나무속(*Abeliophyllum*) 등이 그것인데, 이는 식물의 특성이 연속적이거나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끼리 묶인 그룹에 붙인 이름이다. 학명의 두 번째 이름은 종명(species name)으로 복수인 경우에도 species로 표기하는데, 예를 들면, 소나무(*Pinus densiflora*), 산갈나무(*Quercus mongolica*), 미선나무(*Abeliophyllum distichum*) 등으로 표기한다. 세 번째의 이름은 명명자인데, 이는 학술논문 작성에만 주로 사용한다. 또한, 할랄나무(*Sorbus alnifolia* var. *hirtella* (Nakai) T. Lee)처럼 어떤 식물은 ()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명자인 Nakai(1916)가 처음으로 이 식물을 *Micromeles alnifolia* var. *hirtella*로 발표하였지만 이창복 교수(1966)가 이를 *Sorbus*에 편입하면서 나카이 교수가 이 식물을 최초로 명명했음을 표시한 것이다.

식물의 이름은 흔히 종 이하의 수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에는 아종(subspecies), 변종(variety), 품종(forma) 및 재배품종(cultivar) 등이 있다. 아종은 subspecies(subs.)로 표기하는데, 이는 분류적 그룹의 하나로 어떠한 생물종이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오랜 시간이 지날 경우에 나타나는 생물종의 한 구분이다.

식물과 (Caryophyllaceae)

▶ 과명



Dianthus barbatus



Lychnis viscaria

▶ 속명



Dianthus plumarius



Lychnis viridiflora

▶ 종명



Dianthus superbus subsp. longicalycinus (Maxim.) Kitam. 솔파랭이

▶ 아종

▶ 변종



Dianthus 'Evergreen Emerald' 상록잔디파랭이



Lychnis chalcidonica var.

▶ 품종

보통명(common name)

보통명은 흔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속명이라 부르고도 하며, 한 언어 또는 국가나 한 지방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이름이다. 일반적으로 보통명은 습성(눈썹, 갯버들, 삼지닥나무), 특징(생강나무, 물푸레나무, 주목, 눈잣나무), 산지(설악눈썹, 금강소나무, 광릉물푸레나무, 울릉국화), 용도와 같은 유래에서 비롯된다.

일반인은 식물의 정확한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그리 많지 않아 흔히 보통명만으로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변종(variety, var.)

식물의 명명에 있어서 변종(variety)이란 종 아래의 분류단위로, 흔히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서 형태의 차이를 보이나, 이들과 교잡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변종의 표기는 var.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열매나무(*Prunus salicina* var. *columnalis* Uyeki)

품종(forma, for.)

품종은 꽃이나 잎의 형태와 같이 보다 작은 식물학적 차이를 지닌다. 품종의 표기는 for.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산철쭉(*Rhododendron yedoense* for. *Poukhanense* (H. Lev.) M. Sugim)